

Next Level 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다

안정원-삼성물산 아메리카

코참에서 진행하는 한인 대학생을 위한 여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6 월부터 10 주 동안 삼성물산 아메리카 (이하 SCTA)에서 근무했다. SCTA 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에서 산업자재 거래를 비롯한 물류 사업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화학팀에 소속되어서 영업관리와 자동차, 가전 등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재료를 무역하는 일을 도왔다. 근무 초반에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하는 일을 시작으로 추후에는 시스템 데이터 관리와 개인 프로젝트 업무를 맡았다. 크고 작은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업무 설명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SCTA 에서 사용하는 S-ERP(SAP) 프로그램을 활용해 물류비와 창고비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 처음 사용해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근무 초반에는 많이 헛갈리고 어려웠는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근무 중반부터는 내가 새로 오는 직원들 트레이닝 하는 일을 담당했다. 내가 처음에 힘들어했던 부분을 트레이닝하면서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업무 외적으로 했던 개인 프로젝트는 내 전공을 살려서 전년도 물류비를 고객별로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했다.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어떤 고객과 벤더가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서 배웠던 엑셀을 실무에서 상황에 맞게 수식을 적용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재밌었고, 또한 수업 때 배웠던 이론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나는 무역학 전공자나 관련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무 초반에 무역 용어가 많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팀원들이 도와주었고 틈틈이 검색하면서 공부했다. 그리고 월 말 마감 때 다른 팀원들과 함께 야근하면서 나의 역할이 인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직원들처럼 다양하고 많은 일을 했다. 그때 내가 보탬이 되어서 일이 즐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근무 초반, 전 직원 Company Luncheon 에 참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는데 감사하게도 인턴인 나도 초대해 주셨다. 뉴욕이 내려다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와 선물, 그리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부심과 애사심이 생기게 하는 것 같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하던 나와 인턴십을 마친 이후의 나의 모습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지난 10 주 동안 삼성의 한 일원으로서 인턴십을 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어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 대기업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았는데 유연한 조직문화와 체계적인 업무 분배로 첫 사회생활이 기분 좋게 시작되었다. 한국 회사에서 시작함으로써 회사 문화를 배우고, 회사 운영의 흐름을 배우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늦은 유학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했지만 SCTA 에서 했던 인턴십이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턴십을 기분 좋게 마치고 졸업 후 취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학교로 돌아가고자 한다.